

양악 100년사

나 윤 영

1984년은 천주교가 200주년을 맞은 해였고, 개신교도 100주년을 맞아 각각 뜻깊은 행사들을 가졌었다. 천주교나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양악(그레고리안 성가 또는 찬송가)이 함께 들어왔다고 추정한다면 <한국 양악 200년사> 라고 제목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논문 「한국 천주교회의 성가와 성가집」(차인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그레고리안 성가가 처음으로 전파된 것은 1876년 이고, 그레고리안 성가를 처음 가르쳤던 사실은 1887년 서울 용산 예수성심학교의 교과과정 중 「예전(禮典) 그레고리안 성가」가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신교에서는 1892년 『찬미가』가 발행되기 전까지는 중국말로 된 찬송가를 불렀었고, 1886년에 창립된 배재학당이 바로 다음해부터 음악수업을 시작하여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나, 편의상 통념대로 100년사로 해두기로 한다.^{주1)}

양악 100년사를 쓰기 시작하기 전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김인식(金仁湜)부터 시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백우용(白禹鏞)부터 시작하느냐의 문제이다.

오늘날 김인식을 필두로 이상준(李尙俊)-김형준(金亨俊)-김영환(金永煥)-홍난파(洪蘭破)-현제명(玄濟明)-계정식(桂貞植) 순으로 엮어 나가는 것이 하나의 상식처럼 되어있으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 1) Franz Eckert(1852~1916), 2) 백우용(1880~1950), 3) 정사인(1881~1958), 4) 이상준(1884~1948),
- 5) 김형준(1884~?), 6) 김인식(1885~1962), 7) 박윤근(1891~1989), 8) 김인환(1891~1947),
- 9) 김영환(1892~1977), 10) 홍난파(1898~1941), 11) 박경호(1899~1979), 12) 박태준(1900~1986),
- 13) 안기영(1900~1980), 14) 김재훈(1900~1951), 15) 김문보(1900~?), 16) 채동선(1901~1953),
- 17) 현제명(1902~1960), 18) 윤극영(1903~1988), 19) 계정식(1904~1975).

위와같이 F.Eckert, 백우용, 정사인, 박윤근, 김인환, 박경호, 박태준, 안기영, 김재훈, 김문보, 채동선, 윤극영, 계정식 등은 너무도 소외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개신교의 찬송가를 중심으로 양악 100년사를 생각한다면 김인식, 이상준, 김형준을 의당 내세워야겠지만, 그들이 다루었던 연주 곡목으로 보나, 업적으로 보나 지나친 편견을 갖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좀 새로운 관점에 입각해서 필자 나름대로의 양악 100년사를 엮어 보기로 한다.

1) Franz Eckert (1852-1916)

엑케르트(Eckert)는 1852년 4월 5일 독일 실레지아 주의 재판관의 아들로 태어나 드레스덴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군악대에 들어 가서 병역을 마치고 해군 군악대 대장으로 근무하다가 1879년에 일본 해군 군악대의 교사로 취임했으며, 1900년 귀국하여 프로이센 왕실 악장의 칭호를 받았으나 우리나라 정부의 초청으로 1901년 2월 19일 서울에 도착하여 군악대를 창설하고 그 해의 9월 7일 고종 탄신일에 덕수궁 중화전에서 첫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시작하여 1916년 8월 6일 회현동에서 별세하여 양화진에 묻힐때까지 군악대를 통해 양악을 보급시키는데 있어서 큰 공을 세우는 한편 백우용, 정사인등 우수한 후계자를 양성했다.

따라서 찬송가나 성악곡보다 월등히 수준 높은 본격적인 양악을 우리 나라에 심어 준 점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먼저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주1) 천주교의 최초의 성가집인 <조선어성가>(68곡)는 1924년에 나왔으니, 비록 개신교의 <찬미가>(27곡)가 가사만으로 된 무곡(無曲)찬송가라 하더라도 32년이나 뒤졌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100년사로 해두는데 있어서 일단 수긍이 갈 줄로 믿는다.

그는 오보(Oboe)의 명수였을 뿐만아니라 작곡에도 능했다고 하나 「대한제국 애국가」는 수준작으로 평가하긴 힘들다.

2) 백우용(白禹鏞, 1880-1950)

백우용은 1880년 6월 1일생으로서 1901년 1월 10일 한성관립덕어(덕어=독일어)학교를 졸업하고 엑케르트의 통역관으로 근무하던 중 엑케르트의 감화를 받아 음악을 전공할 것을 결심하고 같은 해 9월 10일 무관학교에 입학하여 1년간 훈련을 받은 후, 1902년 8월 9일 육군 보병 참위(참위)에 임명되었고 1904년 5월 16일 3등 군악장이 되어 우리 나라 최초의 군악대장으로 지휘자가 되었다.

같은 해 9월 23일 2등 군악장, 1907년 3월 26일 1등 군악장이 되어 군악 중대장에 임명되었으며 군악대가 해산된 후 1928년 4월에는 이왕직 아악부 촉탁으로서 국악채보를 전담하기도 했고 1930년 6월에 별세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난 해에 관해서는 '81년 설과 '83년 설이 있고, 또 타계한 해에 관해서도 '30년 설과 '35년 설이 있으니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겠다.

그는 엑케르트의 수제자로서 클라리넷(Eb Clarinet)의 연주자요, 지휘자요, 작곡가, 편곡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작곡인 『20세기 청년여자창가』는 1922년 경성 광문서시 발행으로서 42곡이 수록되어 있다. (정경희 작사)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양악은 엑케르트, 백우용, 정사인에 의해 그 기초가 다져졌다. 한편 백우용, 이상준 등에 의해 창가가 작곡되었고, 특히 이상준에 의해 민속악 채보작업이 시작됐다.

3) 정사인 (鄭士仁. 1881-1958)

정사인은 1881년 12월 7일생 (서울 동대문밖)으로서 1900년 곡호대(曲號隊)를 거쳐 1901년 구한국군악대에 들어가 플루트와 피콜로의 연주자로 활약했다. 1912년에 군악대를 사임하고 조선기독교청년회 (YMCA) 중학부의 음악교사로 취임했으며, 1915년 개성 송도고보 교사로 취임, 25년간 후진을 양성했는데 이때의 송도고보 브라스 밴드는 연희전문학교 주최 전국 학생 음악경연대회에서 항상 1등상을 차지했다.

1940년 경성방송관현악단(지휘: 홍난파)의 플루트 연주자로 활약했으며, 김형준의 권유에 의해 경기공고에서 브라스밴드 지도를 했으나 6·25로 말미암아 대구로 피난, 수복 이후 1958년 7월 26일 별세했다.

그는 플루트의 연주자로서 명성을 떨쳤을 뿐만 아니라 가곡 「아! 내고향」 (내 고향을 이별하고 타관에 와서...)의 작곡가로 널리 알려졌는데 이 곡은 『세계 걸작가곡 백장미 제 1집』 (이철 편집, 1927년 백장미사 발행)에서는 작사자와 작곡자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다.

한편 『아동가요곡선-3백곡집』 (강신명 편집, 1936년 1월 평양에서 발행)의 125면에는 「망향가」 (박태원 작사. 작곡)로 소개되어 있어 다소 의아한 느낌이 들기도 하나 장사인이 죽을 때에 연주해달라고 「아! 내고향」을 브라스밴드로 편곡하여 마지막 작품으로 남겼다고 하니 그의 작곡임에 틀림없을 것으로 믿어진다.

또한 오늘날 신민요로 애창되고 있는 「태평가」가 고마부(高馬夫)작사, 정사인 작곡으로 이상만에 의해 밝혀졌으며, 이보다도 작곡가로서 높이 평가 받는 것은 행진곡 「추풍」, 행진곡 「돌진」 등이다.

여기에 소개하는 행진곡 「추풍」의 제1 클라리넷 악보를 분석해보면 스자(Sousa)의 작품에 비해 별로 손색이 없을 듯한 명작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더욱이 이 곡이 송도고보 재직시대의 작품이라고 추정한다면 1920-30년대에 작곡된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기악곡인 동시에 그를 한국 최초의 브라스밴드곡의 작곡가로 추앙하고 싶어진다.

4) 이상준(李尙俊. 1884-1948)

이상준은 1884년 7월 21일생 (황해도 재녕)으로서 1894년 서울에서 피어선 성경학원을 졸업, 1897년 새문안 교회의 찬양

대를 지휘했고, 1898년 평양의 대성학교의 음악교사로 취임했으며, 1900년 다시 서울에 와서 보성고보, 휘문고보, 숙명여고, 진명여고의 음악교사로 활동했다.

1913년에 조선정악전습소의 조선악, 가남창과(歌男唱科)를 졸업했으며, 1948년 7월 25일 별세할 때까지 작곡, 저술 등을 통해서 실로 맹활약을 했다.

여기서 그의 저서를 소개한다면 첫째로 『조선속곡집 상권』(1914년 10월 5일, 조선복음인쇄소 발행 75면)이 있는데,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 채보집이다.^{주2)}

둘째로 『보통 악전개요』(1916년 2월 29일, 박문서관 발행 77면)가 있는데,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 이론서이다.

셋째로 『최신 창가집』(1918년 5월 20일, 박문서관 발행, 88면)인데, 이 책도 우리나라 최초의 창가집이 아닐까 생각된다.^{주3)}

넷째로 『나팔가곡집』(1929년 9월 8일, 삼성사 발행, 46면)인데, 이것도 우리나라 최초의 군대나팔곡집이다.

이 밖에도 『풍금독습 중등창가집』, 『최신 중등창가집』, 『신유행가곡집 102』, 『소애악창가집』, 『조선신구잡가』, 『신선속곡집』 등이 있다.



새문안 85년사(1973년 4월 20일 발행)의 집사 일람표를 보면,

이상준은 1912, 1914, 1915, 1917, 1918년 5년간 집사를 역임했다.

김형준은 1913, 1915~1917, 1923~1932, 1937~1944...22년간 집사를 역임했고, 김인식은 1914~1917...4년간 집사를 역임했다.

그리고 특히 1917년에는 이상준, 김인식, 김형준, 홍영후(홍난파)의 이름이 있음을 볼때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양악계의 선각자요, 선구자가 모두 새문안교회의 집사였으니 우리나라의 양악사(양악사)는 곧 교회음악사를 뜻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것이 이로써 증명된다고 할 수 있다.

5) 김형준 (金亨俊, 1884~ ?)

김형준은 1884년 12월 10일생 (황해도 안악)으로서 숭실중학교를 졸업한 후 진남포와 안악에서 교편생활을 하다가 1913년 서울에 올라와 협성신학, 피어선 성경학원, 경신학교, 정신여학교, 중앙고보, 경기공고 등에서 후진을 양성하다가 1950년 6·25사변 중 이북으로 납치된 채 오늘날까지 그의 생사를 알 수 없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예술가곡인 홍난파 작곡의 「봉선화」(봉숭아)의 작사자로서 뿐만 아니라 예술가곡 「무덤에서」와 「저 구름의 닷」의 작사자 겸 작곡자로서, 또는 「봉과 엽」(구노의 세레나데), 「성모마리아」(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뱃노래」(러시아 민요, 불가의 뱃노래)를 비롯하여 「개와 고양이」, 「언제 만나 볼거나」, 「한강의 노래」, 「강의 왕」 등의 작사자 또는 역사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니 작곡과 작시에 매우 능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주4)}

한편 그는 이상준, 김인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이를 5선보로 채보했는데 이상준이 속곡을 김인식이 영산회상(양금보)을 채보한데 비해 그는 시조, 가사, 가곡 등 정악 중에서 성악곡을 주로 채보한 것을 송월동의 저택을 방문했을 때에 필자가 직접 보았으나 오늘날까지 보존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게 생각된다.

그는 코넷의 명수였을 뿐만 아니라 명태너였고, 정사인과 함께 관악지도자로서도 음악계와 교육계에 많은 공을 세웠으므로 1932년과 1947년에 이상준, 김인식과 함께 우리나라의 양악계의 3대 공로자로서 표창을 받은 바 있기도 하다.^{주5)}

주2) 민속악이 아닌 정악(正樂)을 채보·출판한 책인 『조선구악 영산회상』은 1914년 8월 15일, 창문당서점 발행(15면)으로 먼저 나왔음.

주3) 18곡은 이상준 작사·작곡이고, 4곡은 다른 사람 작사의 이상준 작곡이고, 8곡은 이상준 작사이다.

주4) 「무덤에서」와 「저 구름의 닷」은 1929년 8월 5일 백장미사 발행의 『세계걸작 가곡집 백장미 제2집』(이철 편)에 수록되어 있다.

주5) 사족을 단다면 그는 우리 나라 피아노계의 양대 산맥 중의 한 분인 김원복 교수의 엄친이시다.

6) 김인식(金仁湜, 1885~1962)

김인식은 1885년 9월 19일생 (평양부 강서)으로서 1904년 숭실중학을 졸업하고 1905년 평양 서문밖 보통학교에서 연합운동회때에 부르기 위해 「학도가」 를 작사, 작곡하였다.

1907년 숭실대학 3년을 수료한 다음 미국 유학을 꿈꾸고 우선 서울에 올라 왔으나 음악교육자로서 사명을 통감한 나머지 유학을 단념하고 1908년에 중앙기독교청년회관, 기호학교, 진명여학교, 오성학교, 경신학교, 배재학교에서 교편생활을 시작했는데 그중에서도 배재에서는 1940년까지 근무했으며, 1911년에 조선정악전습소의 서양악부 교사에 취임하여 이상준, 홍난파를 길러냈고 1912년에 보급서관 발행 『보통창가집』을, 1914년에 『조선구악-영산회상』(양금보)을 출판했다.^{주6)}



그는 학도가, 표모가, 부모의 은덕, 국기가, 전진가를 비롯하여 소년 남자가, 격양가, 강, 해, 솟대 두마리, 제비, 총각 떼뚜기, 당나귀, 바다, 산, 장치 까투리, 삼살개, 눈, 별세계, 비, 바람, 송백, 달, 조롱에서 우는 피꼬리, 재미있는 날(학교 가는 날), 월계꽃, 촛불, 할아버지, 애국의 정신 등의 작사, 작곡은 물론이고 피플새(아름답고 맑은 피꼬리 소리…), 짠아(Thomas 작곡, Call Tohn), 시골 찬양대, 치하하세(업드려 경배합세다), 할렐루야(Handel 작곡 메시아 중에서)를 비롯하여 8·15 해방 후까지 널리 사용되었던 합동 찬송가 중 1 백여편의 가사를 번역하였으니 이상준, 김형준과 함께 그도 작곡, 작사에 매우 능했던 것을 알 수 있다.^{주7)}

한편 그는 190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경성찬양대(남성합창)를 조직했고 그 후에 종교 교회에서 혼성합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했으나 백우용, 정사인, 김형준이 관악(관악)운동에 주력한데 비해 그는 합창운동에 심혈을 기울이므로써 교회 음악 발전에도 큰 업적을 남긴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에게는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을 소개한다면 첫째로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올린 교사로서 조선정악전습소 서양악과에서 홍난파에게 바이올린을 장 2도 낮게 조율해서 가르쳤다고 하며, 둘째로 합창지휘를 할 때에는 왼손을 호주머니에 넣은 채 오른손만으로 지휘를 했고, 셋째로 애국가의 작사자가 안창호나 윤치호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증언하므로써 하나의 문제점을 남겨 놓았는데 그가 작사한 것을 진명여학교에서 가르쳤으며 윤치호가 교장으로 있던 개성 송도고보에 강사로 있을 때에도 가르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다.

그는 개인이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창가집인 보급서관 발행 『보통 창가집(전)』을 출판했다.^{주8)}

숭선대학교 동문회 회원명부를 보면 숭실대학 제5회(1913년) 졸업생 8명 중에 김인환과 박윤근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나라 양악의 공로자의 한분인 마우리 선교사의 애제자였다.

7) 마우리(Eli M.Mowry, 牟義理)

마우리는 1909년에 평양에 온 선교사로서 35년간 숭실대학과 숭실중학에서 생물과 영어를 가르치는 한편 장대현교회에서 남성찬양대, 소녀합창단, 청년면려회, 브라스 밴드와 오케스트라도 조직하여 지도했다.

한편 숭실대학 전도단을 조직하여 교회음악과 양악을 보급시켰고, 특히 3·1운동 때에는 6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김인식, 김인환, 박윤근, 김영환, 박경호, 박태준, 현제명, 김세형, 안익태 등등 - 초창기의 유명 음악가가 숭실에서 배출된 것이 모두 마우리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의 공로는 실로 지대하다고 말할 수 있다.

주6) 학도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창가작곡이라고 말 할수 있는데 서양찬송가의 모방에서 벗어난 곡으로서 Re#이 한번 나올 뿐 모두 5음음계로 되어 있고 특히 중지음이 Re인 것이 주목할 만하여 매우 한국적인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주7) 당시의 가사번역은 흔히 일본말 번역가사를 우리 말로 다시 옮겼으나 그는 일어를 몰랐으므로 영어 원어 가사를 직접 번역한 것이 분명하다.

주8) 백우용, 정사인, 이상준, 김형준은 작곡, 자사, 역가. 작가에 있어서 자신의 이름을 밝혔으나 그는 자신의 작품인 부모의 은덕에 있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으니 이 또한 겸손지덕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의 작품은 그의 장손인 음악가 김웅길 (추강음악학원 원장)에 의해 오늘날도 보존되고 있다.

8) 김인환(金仁煥, 1891~1947)

김인환은 1891년 4월 21일생(평양)의 명나팔수로서 1914년 숭실대학을 졸업한 후, 숭실중학 교사 겸 숭실관악대 지휘자는 물론이고 장대현, 산정현, 서문밖, 창동교회 찬양대를 지휘했다. 1931년 서울로 올라와 이왕직 악대의 고문으로 관악운동에 헌신하다가 1947년 10월 29일 별세했다.^{주9)}

김인환은 김인식의 실제 동생이기도 하나 형은 서울을 중심으로 최초의 음악교사요, 작곡가로서 특히 교회음악 발전에 공헌한데 비하여 아우 김인식은 평양을 중심으로 - 특히 관악 분야를 개척했으니 한국 양악 1백년사에 길이 빛날 큰 별임에 틀림이 없다.

숭실대학 제15회(1923년) 졸업생으로서 현제명(1902~1960), 박경호(1899~1979)와 동기생이요, 김인환이 지휘하던 숭실관악대의 피콜로 주자였던 배홍권(1902 ~)의 증언에 의하면, 김인환이 임종시에 방의 벽지를 뜯고 그 속에 숨겨 둔 대한제국 애국가의 악보를 유품으로 주었다고 한다.

9) 박윤근(朴潤根, 1891~1989.12.1)

박윤근은 1891년 8월 5일생(평양)으로서 우리나라 음악가로서 최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최초로 구미(歐美)로 외국유학을 한 음악가이니 실로 역사적 인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김인환과 함께 숭실대학 제5회 졸업생인 그는 마우리 선교사의 애제자로서 바이올린과 피아노 연주에 능란했다.

1916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미국 우스터 대학(Wooster college)에서 화학을 전공하는 한편 부전공으로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파이프 오르간, 합창지휘를 연구하고 1921년 귀국 후로는 숭실대학에서 화학을 가르치지 않고 음악교수로서 숭실대학 합창단과 숭실대학 관현악단을 지휘했다.

한편 장대현교회 찬양대(혼성 합창)를 통해 교회음악 발전에도 헌신하였는데 숭실대학에서 박경호, 차재일, 박태준, 현제명, 박원정, 김세형, 독고선, 최성두 등 많은 음악가를 배출했다.

그는 말스베리(Dwight R. Malsbary, 1899~1977)의 전임자로서 평양 음악계에 많은 공적을 남기고 1915년말에 서울로 올라온 후로 장수하였다.

그는 매우 겸손하여 절대로 음악가로 자처하지 않으나 미국유학에서 귀국 후 줄곧 음악활동에만 전념하여 크게 공헌하였으므로 사실상 우리나라 최초의-정규교육을 받은-음악가로서의 예우를 받아 마땅하리라고 생각한다.

박윤근에 관한 증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박윤근〉

많은 인사들이 내가 미주에 가서 음악을 전공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지만 음악은 말하자면 곁창구로 유입한 것을 좀 얻어 가지고 귀국하여 양악 초창기에 음악을 애호하는 학생들의 길을 안내해 주었을 뿐이다.

나는 미국에 가기 전에 마우리 선교사의 부인에게 피아노를 배웠고, 김인식 선생에게 음악과 도화를 배웠으며, 미국에 가서 매시간당 1불씩 내고 파이프 오르간을 배우기도 했다.

제자로는 박경호, 현제명, 박원정, 김세형, 박태준, 권태호, 차재일, 계정식, 정훈모 등이 있다.

〈박경호〉

선생님은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교육가이자 음악가의 원로로써 1921년 귀국하여 모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이 때는 미국 출신이라면 대단히 귀하게 여겼는데 특히 피아노를 잘하셨고, 영어에 능란하여 평양 일대의 일류 인기자였다. 숭실대학이 숭실전문으로 변한 뒤에도 음악교육에 힘써 보려고 하던 차에 신사참배 문제로 폐교가 되자- 더욱이 미국 출신으로 어쩔수 없이- 집에 들어 앉게 되었다.

〈배홍권〉

선생님은 김인환 선생님과 숭실대학 동기생으로서 마우리 선교사의 감화로 교회음악 지휘자의 바톤을 물려 받은 인물이며, 박태준은 그의 차석으로 지휘의 대를 이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당시 장대현교회 남성찬양대의 지휘자는 마우리 선교사요, 반주자는 박윤근 선생님이였다.

〈김면주〉

주9) 표준음악사전(금수현 위음)에는 1934년 별세로 되어 있으나 장남인 김경석의 증언에 따라 1947년으로 바로 잡는다.

나는 숭실전문 재학시 김세형과 동기생이었는데 선생님은 박경호, 계정식 등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셨다.

〈최성두〉

나는 숭실전문 재학시 강신명과 동기생이었는데 선생님은 바이올린과 합창지휘자로 활약하셨으며, 박경호, 박태준, 현재명, 김세형 등을 가르치셨다.

〈강신명〉

숭실대학은 창립 초기에 문과와 이과가 있었는데 선생님은 이과출신으로 음악을 하셨다 하겠다.

즉 숭실대학에는 음악과는 없었으나 마우리 선교사의 적극적인 지도하에 많은 음악인을 길러냈는데 선생님은 그 중의 한 분으로서 특히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웠고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서는 음악교수로 계시면서 숭대관현악단을 조직, 지휘하시는 한편 장대현교회에서는 합창을 지휘하셨다.

〈문영복〉

장대현교회 중심으로 성가대(혼성합창)가 역사적으로 처음 평양에서 조직되어 차재일, 길진경, 조선부, 정훈모, 김효근 등 독창자를 많이 양성하신 분이 선생님이다.

10) 정애식(鄭愛息, 1890~1951?)

정애식은 본명이 김엘리스(金愛理時 또는 金愛理施, 金愛滉)로서 이화학당 대학부 제1회 졸업생(1914년)이며, 1917년 일본 나가사키(長崎)에 있는 갓스이(活水)여자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계속하여 1920년에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있는 엘리슨 화이트 음악학교(Ellison White Conservatory) 피아노과를 졸업하였다.

귀국하여 1923년부터 1950년 11월까지 이화여전 음악과 교수로 봉직했을 뿐만 아니라 초대 음악과장(1925~26)과 파이프 오르간이 1918년에 설치된 정동감리교회의 초대 오르가니스트를 역임한 - 여성음악가로서는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기도 하다.

그는 피아노는 물론 음악이론, 작곡법, 청음과 시창, 음악사 및 음악감상법 등을 강의했으니 실로 오늘날의 이화여대 음악대학의 기초를 세운 공로자이기도 하다.^{주10)}

11) 김영환(金永煥, 1894~1977)

김영환은 평양 태생의 대지주의 아들로서 6세때 미국인 선교사 W.M.Baird(裴緯良) 집의 오르간 소리에 매혹되어 음악에 눈뜨기 시작했고, 숭실학교에 다닐 때에는 김인식과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13세(1905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다이세이(대성)중학, 도요(동양)음악학교를 거쳐 우에노(상야)에 있는 도쿄음악학교를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1918년에 졸업했다.

곧 귀국하여 음악과가 없는 음악과장으로 연희전문학교 조교수에 취임하여 10년간 가르침으로써, 박태원, 안신영, 신봉조, 독고선, 이인선, 이광준 등을 배출했다.

또 우리나라 피아노계의 2대 산맥인 김원복(1908~)과 이에내(1909~)를 비롯하여 기라성같은 피아니스트를 탄생케 했을 뿐만 아니라 1919년에 홍난파, 김형준과 함께 경성악우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인 연주활동을 하였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규 음악학교 출신이니 참으로 역사적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주11)}

12) 홍난파(洪蘭破, 본명 홍영후, 1898 ~ 1941)

홍난파는 수원 근처인 경기도 화성군 남양읍 활초리에서 1898년 4월 10일에 태어나 1941년 8월 30일에 요절했는데, 국악에 있어서의 3대 악성이 왕산악, 우륵, 박연이라면 양악에 있어서 3대 악성중의 첫째가 홍난파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그는 2세에 선교사의 권유로 백씨인 석후(홍석후)와 함께 상경하여 정동에서 살면서 이화학당에서 흘러 나오는 피아노 소리에 매혹되어 음악의 길을 택하였는데, 1910년에 서울 YMCA 중학과를 다니는 한편 1912년에는 조선정악전습소에 입학하

주10) 2대 음악과장과 정동감리교회의 2대 오르가니스트 Miss Mary E.Young(美理英, 1880~?)인데 그는 본래의 전공은 가사과였으나 1919년 12월 이화학당 음악교원으로 취임하여 42년에 사임했으니 그의 공로는 정애식에 결코 못지 않다.

주11) 그는 1977년 2월4일 미국에서 별세했다.

여 성악과 4현금(바이올린)을 전공했다.

1918년 일본에 건너가 도쿄음악학교 예과를 수료하고 3·1운동에 가담하는 한편, 1919년 도쿄에서 순 예술 잡지인 『삼광』을 3호까지 편집·발행했다.^{주12)}

그는 1922년 「연악회」를 창설하여 바이올린 개인교수는 물론 실내악, 관현악 운동을 처음으로 전개했고, 1925년 우리나라 최초의 순음악잡지 『음악계』를 편집, 발행하여 7호까지 계속했다.

1926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고등음악학원 본과에 입학하여 1929년에 졸업하고 귀국하여 중앙보육학교 음악주임 교수로 활약했다.

1931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시카고에 있는 Sherwood Music College에서 연구하여 1932년 6월에 졸업과 동시에 귀국하여 1933년 경성보육학교 음악주임 교수에 취임하여 음악교육에 전력하는 한편 바이올린 독주, 작곡, 실내악 운동, 관현악 운동, 음악평론, 음악출판, 창작 소설, 번역소설에 이르기까지 실로 눈부신 활동을 하였으니 그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라 해도 조금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여기서 참고로 8·15이전까지의 우리나라 음악 잡지의 역사를 더듬어 보고 넘어간다면 다음과 같다

1. 음악과문학 (홍난파, 황석우 편집)…1921년 2월 창간.
2. 음악계 (홍난파 편집)…1925년 창간.
3. 음악과 시 (양창준 편집)…1930년 창간.
4. 음악 (최성두 편집)…1934년 창간.
5. 음악평론 (김복원 편집)…1936년 6월 창간.
6. 음악교육 (? 편집)…1935년 ?월 창간.

위의 6종 중 『음악과 문학』과 『음악과 시』는 창간호로 끝났고 『음악 교육』은 2호까지, 『음악계』는 7호 까지 나왔다

『음악』만은- 최성두의 증언에 의하면 - 44년 7월까지 최장수를 기록했다고 하니 음악서지 목록 (하) - 하동호(문예진흥 제7권 제12호)의 「음악잡지로는 처음 발행되었으며 단호(단호)로 종식되었다」는 잘못으로 판단된다.

또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음악학원인 연악회의 회원 명부(1923년 4월 -1933년 6월)가 최근에 발견되었는데 그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홍재유, 광정순, 김태오, 피천득, 김성태, 이석화, 문학준, 전희봉

이 밖에 채동선, 홍성유, 홍지유도 그의 문하에서 배출되었으니 오늘날 정경화- 김영옥 - 강동석이 세계 음악계를 주름잡고 있는 것이 결코 기적이나 돌연변이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사보 삼익악기 '85 12월부터 '86년 8월까지 연재된 내용임〉

주12) 삼광 창간호(1919년 2월 10일 발행) 4번 Y.H. 생과 도례미(都禮美), 도례미 생은 홍난파의 필명임이 분명하다.